

‘쾌속질주’ 기아차 덕분에 협력업체들도 잘~나간다

‘쾌속질주’하는 기아자동차 덕분에 협력업체들도 신바람이 났다. 기아차라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급성장하면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6일 자동차업계와 하남산단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이 50만대 재편 사업을 추진하면서 250여 협력업체들도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아차 생산량 증대에 맞춰 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협력업체들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기업을 키워가고 있다.

광주 광산구 소촌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차체 모듈화 전문기업인 (주)호원(대표 양진석)은 스포티지R과 쏘울·카렌스·봉고 1.1트럭의 문과 후드·백패널 등을 납품하는 기아차 1차 협력업체다. 이 회사는 최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남양건설 계열사인 휴튼CC를 인수했다. 인수가격은 87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호원은 지난 1993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해 태화금속·덕원정밀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부품업에 뛰어들었고 기아차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04년 408억원이던 매출액이 2005년 615억원, 2006년 758억원, 2007년 818억원, 2008년

867억원, 2009년 901억원으로 해마다 100억원 가량의 신장세를 거듭했다. 당기순이익도 2004년 8억원에서 지난해 25억원으로 5년 새 3배 이상 끌어올렸다.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터키에 계열사인 ‘호원 오토모티브’를 설립해 현대·기아차와 함께 유럽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휴튼CC 인수는 레저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호원, 휴튼CC 인수하고 해외 진출도

대우에이텍, 금융업 진출 사업 다각화

자동차 시트 생산에 주력해왔던 대우에이텍은 최근 창업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계열사인 대우신소재와 함께 24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창업저축은행 신주 240만주를 인수, 자본 74.59%를 확보했다.

대우에이텍은 경영권 인수후 사명을 ‘스마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서울과 경기도에 지점을 개설하는 등 호남 최고 저축은행을 넘어 국내 초우량 저축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에이텍은 기아차 시트 제조 협력업체로 창업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매출 신장을 이룬 이 분야 선두기업이다. 1999년 창립 당시 118억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991

억원으로 늘어났다. 2005년에는 2054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광주 첨단산단 테크노파크에 있는 탑알앤디(대표 김규하)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50여개나 보유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아차 연구개발 1차 협력업체다. 김규하 대표가 공학박사로 13년간 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 몸담은 인연이 있다.

이 회사는 물 위와 비포장 산길까지 주행이 가능한 다목적 수목양용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기자동차 선두기업이다. 최근 기존에 개발된 것보다 힘과 운동능력이 뛰어난 근거리용 전기자동차(NEV) 개발에 성공했고, 신개념 4인승 승용전기차를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협력업체들은 또 자체 모임을 만들어 틈틈이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기아차 협력회 광주분회(회장 양진석)는 6일 광산구 노인복지관에서 ‘효’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호원·현대하이텍·일정 등 20여 협력업체가 참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



광주의 새 야구장 건립 부지로 기존 무등경기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가 시민의견수렴과 타당성 용역을 거쳐 올해 말 최종적으로 부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 대다수는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무등경기장 전경. /내명기자 mjna@

광주 새 야구장 2500석 개방형으로

시민공청회 무등경기장 축구장 헐고 신축 유력

광주의 새 야구장은 무등경기장 내 축구장을 철거한 후 2만5000석 규모의 개방형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와 ‘야구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6일 광주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학계·체육계·언론계·시민단체·야구팬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야구장 건립방안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야구장 건설 방식은 개방형으로 하되 규모는 2만 5000석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지의 경우 ▲구도심 쇠락 방지 ▲장소소유지 ▲건축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무등경기장이 최우선 순위로 제시됐다.

그러나 일부 패널들은 현 무등경기장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고,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미흡, 주차장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인근 단독주택지역 및 보훈회관 등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지역여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때 광주시가 추진했던 동구장의 경우 민자투자 기업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문가와 기아타이거즈 구단 등이 천연잔디를 선호하면서 논의에서 제외돼 사실상 폐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부지 타당성 용역도 거쳐

단점이 있더라도 무등경기장을 부지로 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며 “무등경기장이 유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지 결정은 올 연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등경기장의 교통접근성 미흡 등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입지는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시는 이달 내 한 차례 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무등경기장과 다른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장에 윤봉근 의원 선출

부의장 정현애·이은방 의원

제6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윤봉근(53·민주당·광산 1) 의원이 선출됐다. <인터뷰 5면> 윤 의원은 6일 열린 제6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투표에서 전체 투표수 26표(무효 4표) 중 17표를 얻어 5표를 획득한 강은미(40·여·민주당·서구 4) 의원을 누르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윤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의회 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



회 의장 경선에서 3선인 손재홍(50), 나종현(67), 재선인 조호권(50) 의원을 누르고 의장 후보로 선출돼 이미 당선이 유력해졌다.

또한, 이날 제1부의장에는 비례대표 재선인 정현애(58·여·민주당)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초선인 이은방(47·민주당·북구 6)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최권일기자 cki@

‘얼굴없는 천사’ 영암·목포에 3억3천만원 기탁

‘얼굴없는 천사’가 영암과 목포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사달라며 3억원이 넘는 기탁을 기부했다.

6일 영암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에 따르면 영암지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 3억 3000만원을 익명으로 기탁했다.

이 남성은 이 돈을 중앙회 통장으로 입금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영암과 인근 목포지역 저소득층에게 쌀과 생필품을 보내달라는 뜻만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의 신분만은 절대 비밀에 부쳐 줄 것을

“저소득층에 써 달라” 6200여가구 혜택

요청했다. 이 남성은 타 지역 출신으로 영암과 목포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모금회 전남지회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영암군에 2억2000만원, 목포시에 1억1000만원을 전달했다. 영암군은 관내 저소득층 3500가

구에 영암에서 생산된 청결미와 생필품을 농협 등을 통해 배송하고 있다.

목포시도 지난달 말부터 저소득층 2731가구에 쌀과 생필품을 배송하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아름다운 기부로 이들 두 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얼굴도 환해졌다. 쌀과 화장지 등을 받은 박모(여·76)씨는 “갑자기 생필품이 전달돼 깜짝 놀랐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나 같은 노인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고마운 기부”라며 활짝 웃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Advertisement for '얼굴없는 천사' (Faceless Angel) charity, highlighting donations to low-income households in Yeongam and Mokpo.

Advertisement for Kwangju University, celebrating its 56th anniversary and promoting its commitment to educ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Large advertisement for '무등빌딩 임대' (Mudeung Building Rental), featuring a modern build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leasing inquiries.